

“생계비·학자금 벌어야죠” 언손 녹이며 대기

르포 - 광주 새벽 인력대기소 가보니

300여곳 하루 1만여명 대기...한달 잘해야 보름 정도 일해 높이 낮추면 일자리 많아...대학생도 건설현장 뛰어들어

광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한 지난 21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N인력대기소엔 초조함이 묻어났다.

33㎡(10평) 남짓한 사무실은 석유난로로도 데우지 못한 냉기가 흘렀다. 장기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줄어든 일자리 때문이었다.

30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N대기소 전화기와 조정기(71) 소장의 휴대전화 벨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대리석 시공 일을 하는 정모(50)씨는 인터넷 요청을 거부하다 마지못해 응했다.

그는 “한달에 보름정도 일하면 많이 한다. 생활이 안 된다. 건설현장엔 값싼 인건비에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40여분 뒤 N대기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노동자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조 소장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다. 조 소장이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한 뒤 정씨 등 3명을 불러세웠다.

정씨 등은 이날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됐다.

목수·철공 등 기술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11만~12만원. 인력소개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10%를 빼고, 교통비 4000~5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8만~9만원을 손에 쥘다.

그나마 이들은 나은 편이다. N대기소를 찾은 노동자 30명 대부분은 다양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 김모(58)씨는 “화순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타고 왔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평생 벼농사만 한 지라 다

른 기술이 없어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새벽 일터에 나온 근로자들의 사연도 다양했다. 서구 풍암동에서 찾아온 정모(50)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노선에 뛰어들어 28년간을 공사현장을 누볐다. 그러던 중 올해 대리석 시공업체를 차려 하청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2000만원 대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었다.

정씨는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한 딸의

학자금 마련과 가족을 위해 휴일 없이 나와 일하고 있다”며 “일할 의욕만 있으면 일자리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까지 빠짐없이 일을 해 대학교에 입학한 딸의 학자금을 마련해줄 생각이야. 지난 10월부터 두 달째 막노동에 뛰어들고 있다. “내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앞두고 쓸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편의점 등 여러 아르바이트도 고려했지만 한 달간 근무를 해야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지역 인력대기소는 300여 곳. 하루 평균 1만 명 가량이 대기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으로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거리가 지난해와 비교해 30% 이상 줄면서 해당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빼앗아갔다.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이는 일자리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공사 현장에선 목수 등 기술이 없는 노동자라면 젊은층을 선호해 50대 이상의 노동자의 구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일용직 노동자 이모(57)씨는 “한달에 열흘 남짓 일하며 하루 평균 6~7만원 가량 손에 넣는다. 사람이 넘치는 상황에서 낚시 살이 넘는 인력을 어느 업주가 쓰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날 N대기소는 오전 6시40분을 끝으로 문을 마감했다. 이날 오전 7시께 N대기소를 찾은 50대 남성은 “오늘은 끝났습니다”라는 조 소장의 말에 얼굴을 떨었다. 동 트기 한참 전이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한 일용직 노동자가 지난 21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N인력대기소 앞에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0년 잉꼬부부의 ‘안타까운 이별’

황토방서 함께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할머니 숨져

50년 해로(偕老)한 부부가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만든 황토방 때문에 영원히 이별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방 바닥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부부의 생사를 갈라놓았다.

25일 장흥경찰과 장흥소방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10분께 장흥군 A(76)씨의 자택 황토방에서 A씨와 아내 B(76)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A씨의 아들은 이날 오후 1시께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이웃에게 ‘부모의 집을 살펴봐달라’고 부탁, 응급구조가 이뤄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매캐한 냄새와 함께 B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A씨는 구도를 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다.

광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호흡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고, B씨의 시신을 검사한 검사관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용하지 않은 10㎡(3평) 규모 창고를 올 여름 황토방으로 개조했다. 소문난 잉꼬부부였던 이들은 날씨가 추울 때 종종 황토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방을 당한 23일도 장흥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었다.

경찰은 황토가 발진된 방바닥에서 미세한 틈이 발견됨에 따라 아궁이에서 방으로 연기가 스며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은 가로 1m·세로 2m 크기 나무문 외에는 창문 등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일산화탄소 중독을 부추긴 것으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에도 담양에서 노부부가 밀폐된 방에서 등유 난로를 켜놓고 휴식을 취하다 둘 다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에서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구들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재에 미세한 틈이 생길 수 있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환기를 자주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빛 유예 거절한 채권자 돈기 폭행 채무자 징역형 선고

빛을 갚을 기간을 유예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채권자의 머리를 돈기로 폭행한 40대 채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한 지역 대부업자 B씨의 사무실에서 미리 가져간 돈기로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당장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말을 듣고 변제기한 유예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돈기를 미리 준비하고 뒤돌아 앉아 있던 B씨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키로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보완 조사를 거친 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본부는 25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했다.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삼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에서 나타난 건물 시설관리 탓에 유례 없는 사상자가

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벨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남은 기간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법원 “급발진 의심 사고에 운전자 면허정지는 부당”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갑자기 가속돼 도로에 진입한 것은 이른바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만큼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의 한 세

차장에서 자신의 대형 SUV 차를 자동 세차했다.

그런데 세차를 마치고 나온 차를 운행하려 하자 차가 갑자기 출발해 지나가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고, 연속 사고까지 일어나 총 8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문제의 차를 검사한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급발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60점을 받았다. 마포경찰서는 이를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60일간 정지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훈훈한 선물’...절도 노인 용서하고 합의금 돌려줘



○...50대 카페 사장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 80대 노인을 용서하고 합의금까지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83)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B(51)씨가 운영하는 카페 옆 공터에 놓인 냉·난방 실외기의 구리전선을 절단해 300만 원 상당의 실외기를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구리전선을 절단하던 중 B씨에게 발각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됐는데, A씨

는 경찰에서 “노령연금 수급자로 형편이 곤란해 근근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와 고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아버지의 입건 소식은 들은 A씨의 딸 C(52)씨는 합의금 50만원 마련해 카페를 찾아가 B씨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카페 사장인 B씨는 A씨의 딸이 건넨 합의금 50만원을 받고선 “크리스마스선물이다”며 다시 돌려주며 조용히 합의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훈훈한 감동.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와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약속

회원의 소중한 꿈이 담긴 자산
MG금남새마을금고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정기에탁금
1년 최고 **2.4%**

정기적금

| | | |
|-------------|-------------|-------------|
| 1년 | 2년 | 3년 |
| 2.2% | 2.3% | 2.4% |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2017년 한 해 동안 금남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 여러분의 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